

MERITZ 메리츠화재

8.7% 저렴한 친환경 차 보험 적극판매 나서



메리츠화재는 업계 최초로 OBD(주행기록장치) 무상임대 서비스를 7월 28일부터 전격 확대 시행하고 있다.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은 평일 중 하루를 정해 운행하지 않으면 보험료의 8.7%를 돌려주는 상품으로, 자율적 차량운행 절제를 통해 환경 개선과 교통량 감소 및 보험료까지 할인받는 일석 삼조의 상품이다.

연간 자동차 보험료를 70만원 내는 경우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을 통해 8.7% 할인된 약 6만9백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민의 경우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동참하면 자동차세 5% 감면,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등 다양한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등록은 메리츠화재에서 대행해 준다.

서비스 신청은 메리츠화재 자동차보험 콜센터(1661-2114)나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되고, 원하는 경우 무상 장착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

해외인턴 봉사활동



한화손해보험 해외 유학생 인턴사원 11명이 7월 9일 경기 남양주 소재 신망애복지재단을 찾아 이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과 함께 친교활동을 하고 요양원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권처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13명도 함께 참가했다.

한화손해보험 인턴사원들과 임직원들은 여름철을 맞아 요양원 내·외부 시설을 청소하고 환경정리 활동을 했으며, 장애인들과의 '1대 1 말벗되기' 친교시간을 갖고 부채에 메시지를 적어 서로 교환하는 행사도 가졌다.

한화손해보험은 또한 장애인들의 안전보행을 도와주는 기구 설치를 위해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권처신 대표이사는 이곳에서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한 천연비누를 구입해 인턴사원들에게 기념선물로 전달했다.

대표이사 직속 비공식 회의체 '청년중역회의' 운영

한화손해보험은 최근 일선 업무현장과 경영진의 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젊은 직원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경영에 반영하고자 대표이사 직속의 비공식 회의체인 '청년중역회의(Junior Board)' 발족하였다.



지난 7월 16일 권처신 대표이사는 문제의식과 혁신정신이 풍부한 대리·과장급직원 7명을 청년중역회의의 멤버로 선정하고 임명장을 수여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이들이 일선 현장의 다양한 건의사항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전달해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혁신적인 조직문화 창출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청년중역회의의 공식명칭은 'SMART (Synergy-Motivation-Action-Reengineering-Trust) Board' 로, 통합 시너지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도출된 아이디어를 실행하여 조직을 혁신하고, 상호 신뢰하는 기업문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회사의 의지를 담고 있다.

롯데손해보험

사단법인 성민원에 사랑의 쌀 전달



롯데손해보험은 7월 15일 서울 남창동 소재 본사 20층 대표이사 접견실에서 김창재 대표이사 와 사단법인 성민원의 권태진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사랑의 쌀 전달은 회사의 1사촌 마을인 토고미 마을의 무농약 쌀 재배를 위해 직원들이 매년 후원하고 있는 '우렁이 농군 보내기'에 회사가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후원한 쌀 3,060kg을 성민원에 기부하는 것이다. 성민원은 9월 추수 시기에 토고미마을로부터 햅쌀 3,060kg을 수령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햅쌀 공부방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사단법인 성민원은 경기도 군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햅쌀공부방,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의 무료 석식을 지원하는 무료 급식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퇴직연금 도입 설명회 실시



롯데손해보험은 6월 18일 서울 남창동 소재 본사 21층에서 그룹 계열사 경리, 인사 실무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 도입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계열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조기 전환의 필요성과 당사의 퇴직연금 도입 준비 현황을 알리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임병희 영업총괄임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퇴직연금 도입방향 및 퇴직연금 제도와 도입 실무 및 퇴직연금 규약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변경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 내용과 퇴직연금 도입절차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문 및 답변도 병행되었다.

한편 이명집 퇴직연금팀장은 총평을 통해 "차별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계열사의 퇴직연금 도입에 롯데손해보험이 앞장서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각 계열사의 재무, 인사, 노무상의 특성에 따라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린손해보험

기업 트위터(greeninsu) 오픈



그린손해보험(회장 이영두)은 6월 23일, 고객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목적으로 기업 트위터(twit-

ter.com/greeninsu)를 공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자 증가로 1:1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됨에 따라 트위터 이용자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 그린손보는 본격적 트위터 마케팅에 돌입해 회사 홍보, 보험상품 및 금융 정보를 제공하고, 잠재고객 확보와 기존 고객 관리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고객 질의에 응답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더 나아가 트위터가 설계사 리쿠르팅, 인재채용에도 유용한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트위터 개설을 시작으로 보험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스마트폰, SNS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퇴직연금 관련 특별강좌 실시

그린손보는 지난 7월 15일, 본점 강당에서 퇴직연금보험시장에 대한 사고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퇴직연금보험 시장의 변화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특별강좌를 실시했다.



참석자 90여 명은 보험연구원 류간식 선임연구위원의 2시간 여 걸친 강의에서 한·미·일 퇴직연금 운영사례 및 특징을 짚어보고, ▲퇴직연금 보험시장의 변화와 경쟁요인 ▲퇴직연금 수요자의 인식실태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및 과제 전반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강의를 통해 류 연구위원은 당사 임직원들에게 "퇴직연금은 미래 신성장 시장으로 신중히 고려해야 할 파트"임을 주지시키고, "차별화된 서비스, 종합컨설팅이 가능할 때 비로소 타 금융업종의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강익중 작가의 '2010 아름다운 강산' 흥국화재 본사빌딩 로비에 설치



흥국화재는 태광그룹 산하 일주학술문화재단과 함께 재단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7월 19일부터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조형작가인 강익중과 진 하이스틴(Jene Highstein)의

대표작품들을 서울 신문로 흥국화재 본사빌딩 1층 로비에 3층 일주&선화갤러리에서 전시하고 있다.

강익중 작가가 2000년 흥국빌딩 1층 로비에 가로 31m, 세로 3m의 거대한 규모로 설치해 주목을 끌었던 '아름다운 강산'이 '2010 아름다운 강산'으로 새롭게 바뀌어 상설 전시됐다. 우리의 산, 향아리, 언어 등을 오브제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강산'은 설치 당시 이미 실내작품으로는 최대 규모인데다 가로, 세로 각 3인치의 무려 7,500개나 되는 미니캔버스로 꾸며져 주목을 받았다. '아름다운 강산'은 흥국화재 광장에 설치된 조나단 브롭스키의 '해머링맨'과 함께 각각 실외와 실내를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공미술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강익중 작가의 제안으로 2년 간의 준비를 거쳐 완전히 새 작품으로 거듭난 '2010 아름다운 강산'은 7,500개 캔버스 중 절반 이상을 교체해 총 8,100여 개의 캔버스로 더 커진데다,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과 소품 등을 추가하면서 입체감이 확연히 살아나 종전과 전혀 다른 느낌을 준다.

흥국화재 본사빌딩 3층에 위치한 일주&선화갤러리에서는 인간과 물질에 대한 존재론적 물음을 제시하며 물질의 본질을 작품으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진 하이스틴의 조각 작품과 드로잉 등 작품 17점을 소개하는 <공감 : The Body as Thought>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공감 : The Body as Thought>전은 진 하이스틴의 대표작품을 전시해 40여 년간 작가가 탐구해온 '물질의 원형적 형태와 본질'이라는 주제를 심도 있게 선보이고 있으며 9월 12일까지 관람가능하다.

흥국화재 모기업인 태광그룹이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올 초 문을 연 일주&선화갤러리는 지난 3월 '한국미술, 근대에서 길찾기', 추사에서 박수근까지', 6월 '이승조 20주기 추모전' 등을 잇따라 무료로 기획해 기업의 문화지원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삼성화재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 진출



삼성화재는 6월 21일 중국 현지 보험사인 화태 보험사와 자동차 보험에 대한 포괄적 업무 제휴를 체결하고,

중국 자동차 보험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제휴를 통해서 삼성화재는 현재 중국 보험 규정상 외국계 보험사가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한국의 책임보험)을 판매할 수 없는 걸림돌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는 지난 2005년 외자계 보험회사로는 세계 최초로 단독 법인을 중국 상해에 설립한 이후 기업보험 위주의 보험영업을 해 오고 있다. 최근 중국 자동차보험 경영환경이 판매 수수료 규제강화, 지급 보험금 관리 투명화 등으로 개선됨에 따라 중국 자동차 보험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중국 자동차보험시장 본격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한차원 높은 자동차보험 원스탑(One-Stop)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대섭 사장, 『미소금융 명예 서포터즈 활동』 실시

삼성화재 지대섭(池大燮) 사장은 이순동 삼성미소금융 재단 이사장과 함께 6월 14일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인 경산공설시장을 방문해, 미소금융 홍보활동을 펼치고 상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였다.



이들은 경산공설시장 상인회의 송재환 회장, 경상북도 장은재 경제교통정책과장, 경산시 이상인 경제통상국장 등과 함께 등 미소금융 홍보 어깨띠를 두른 채 시장 곳곳을 돌며 미소금융 대출자격과 조건, 지점위치 등이 담긴 안내장을 배포하면서 가두 홍보를 펼쳤다.

이 밖에도 삼성화재 대구경북사업부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회봉사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는 것은 물론 가사일이 서툰 남성 독거노인의 결식과 영양결핍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남성 독거 어르신 청춘 요리사 프로그램'과 '발달장애 아동들과 함께 하는 농촌 주말체험' 등 현재 운영하고 있는 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H 현대해상

7 Heart Service 선포식



현대해상은 새로운 고객 접점 서비스 브랜드인 7 Heart Service 선포식을 지난 7월 7일 광화문 본사에서 가졌다. 7 Heart Service는 고객과 접촉하는 채널을 긴급출동, 하이플래너, 콜센터, 현장출동, 장기보상, 자동차보상, 항구 등 7개 접점으로 분류해 각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고유의 색상을 부여하고, 서비스 세부지침을 정의한 현대해상의 새로운 서비스 브랜드이다. 이날 선포식에서 서태창 대표이사는 고객이 현대해상을 만나는 모든 순간 따뜻한 감동과 최상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임직원과 하이플래너, 자회사와 협력사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2010 GCSI 장기 및 자동차보험 부문 1위 달성



현대해상이 2010 GCSI(글로벌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 부문 각각 1위를 수상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GCSI 조사는 일 본능률협회컨설팅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객만족도 조사로, 올해에는 10만여 명의 소비자가 평가에 참여한 가운데 9개 산업군, 680개 상품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이번 GCSI 조사 결과 현대해상은 2009년부터 실시한 장기보험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6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LIG 손해보험

보험도 리모델링 시대 'LIG YOU플러스건강보험' 출시

LIG손해보험은 리모델링제도와 보험료 납입면제제도 등 고객의 편의성과 보장 혜택을 한층 강화시킨 건강보험 신상품 'LIG YOU플러스건강보험'을 7월 1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고객의 생애 주기에 따라 보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 필요한 보장내용은 유지하고, 불필요한 보장내용은 삭제할 수 있다. 특히, 불필요한 보장항목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여유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15세 이후에 사망 담보 및 성인병 진단담보를 추가할 수 있어, 하나의 보험상품 가입으로 0세부터 100세까지 일생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기간 중 상해나 질병으로 80% 이상 고도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함과 더불어 보험이 소멸됐던 대다수의 기존의 보험상품들과는 달리, 80% 이상의 고도후유장해를 입었더라도 보험 만기 시까지 위험 보장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환경공단과 기후변화 대응 업무협약 체결



LIG손해보험은 7월 19일 서울 역삼동 소재 LIG손해보험 본사에서 한국환경공단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IG손해보험은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 개발체제) 구축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한국환경공단은 LIG손해보험이 지난 7월 초 구축을 완료한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대한 검·인증 심사를 수행함과 더불어 기후변화 종합대책 관련 각종 세미나와 교육과정 제공을 통해 축적된 정보와 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한국환경공단이 검·인증 심사를 수행할 '온실가스 인벤토리'란 사업장별, 설비별, 프로세스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통계화하는 온실가스 관리 통합 전산 시스템이다.

동부화재

2040세대 전용보험 '스마트라이프보험' 출시

동부화재가 스마트한 2040세대의 특징을 반영한 '프로미라이프 스마트라이프보험'을 출시했다.

'프로미라이프 스마트라이프보험'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



세대(만 20세~49세)를 위한 상품으로, 활발한 레저활동을 즐기는 고객을 위해 다양한 여가활동 중 일어나는 사고를 집중 보장한다.

직장인을 위한 차별화된 보장이 가능하며 특히 직장생활을 하는 가임여성을 위해 임신·유산 등 산모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태아 및 신생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출산위험담보 및 저체중아 육아비용 등의 리스크까지 보장한다. 또한 프로미 스마트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스마트라이프보험에 가입하면 문화와 레저에 적극적인 2040세대를 위해 공연, 영화, 주유, 레저 등 각종 문화콘텐츠와 라이프서비스를 무료 또는 할인하여 제공한다. (월납영업보험료 2만원 이상 가입 시)

The Company of Korea 2010 '5년 연속 신뢰기업대상' 수상



동부화재가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5년 연속 "The Company of Korea 2010"에서 신뢰기업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동부화재는 중앙일보사와 한국소비자포럼이 공

동으로 주관하는 "The Company of Korea 2010"에서 보험업계에서 가장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은 물론 고객 중심의 브랜드가치를 더하는 데 기여한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동부화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고객에게 확실한 믿음과 차별화된 기업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초대형 석유화학공장 등 고위험 시설, 7월부터 화재안전점검 실시



전국의 중대형건물(특수건물)에 대해 매년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지난 2000년 1월 12일 이후 중단했던 전국의 초대형 석유화학공장 등 600여 건

에 대한 화재안전점검을 7월부터 재개했다.

초대형 석유화학공장 등은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시설로서, 최근 10년간 50억~800억원의 고액보험금이 지급된 폭발사고가 13건이나 발생하였으며, 주로 60~70년대 건설된 시설들로 노후화에 따른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점검을 통한 사고발생 억제 및 위험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손해보험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3월 초대형 석유화학공장 등의 화재안전도를 향상시키고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0. 3. 22)됨에 따라 화재안전점검이 재개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초대형 석유화학공장 등의 경우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활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호산업(주) 부천정비공장에 「KFPA 화재안전인정」 수여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지난 6월 금호산업(주) 고속사업부 부천정비공장(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소재)을 「KFPA 화재안전인정」 업체로 최종 선정하였다.

「KFPA 화재안전인정」 제도는 사업장의 화재안전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국화재보험협회가 화재위험관리가 뛰어난 기업을 엄선하여 인정하는 제도이다.

선정은 협회의 방재전문가들이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정밀 위험진단을 하고,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치는 엄격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화재안전인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1년마다 확 인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금호산업(주)고속사업부는 국내 최대의 버스운송업체로서, 화재에 방화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소화·경보·피난 등 방화 관련 시설을 우수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다.